

극단의 스포츠엑스트림은

★ 글 | 김순응 서울옥션 대표이사



마음의 평화

● 연륜이 쌓여가도 인생살이의 버거움은 조금도 덜해지지 않는다. 한때는 나이 오십 줄에 들면, 맹자님처럼 하늘의 뜻을 감히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삶은 좀 평온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어서 빨리 늙기를 조바심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나이가 되어서도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울퉁불퉁하고 혼미하며 내 삶도 여전히 뻑뻑하고 빠그덕거리고 덜컹거리고 지리멸렬하다. 맹자님은 열다섯에 이미 학문에 뜻을 두고, 서른에 뜻을 세우고 마흔에는 미혹을 몰랐다고 하는데, 맹자님에 비하면 나의 삶은 참으로 가없다. 나 같은 사람일수록 쉬지 않는다. 뜻을 확고하게 세우고 미혹을 모르거니와 하늘의 뜻까지 알아버린 사람의 삶에는 피로라는 것이 끼어들 여지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우리는 이유 없는 불안과 근거 없는 우울로 늘 피곤하다. 현대의 도시인들이 겪는 스트레스라는 이름의 이런 피로는 워낙 총체적이고 전방위적이어서 그 처방 또한 쉽지 않다.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망각이나 격절 외에는 없어 보이는데 살아서의 망각이란 도가 트이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고 격절은 세속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깊은 산 속으로 숨어들기 전에는

안 될 일이다. 나는 망각을 위해 스포츠를 즐긴다. 스포츠 중에서도 잡념이 끼어들 수 없는,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과격한 쪽을 좋아한다. 이런 운동에 집중하는 동안 만큼은 무념, 무상의 경지에 이르러 모든 것을 잊고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

이런 운동을 통칭하여 엑스트림 스포츠(Extreme sports, 일명 엑스게임)라고 한다. 말 그대로 그 역동성과 위험이 극에 이른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주로 각종 보드(타는 장소가 땅이나 눈이나, 물이나에 따라서 스케이트, 스노우, 웨이크 등이라는 접두어가 붙는), 인라인 스케이트, BMX 등을 일컫는데, TV나 영화 같은 데서 이런 운동으로 묘기를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엑스트림'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은 스노우보드와 웨이크 보드다. 나는 오래 전부터 스노우 보드 마니아였으며 겨울과 겨울 사이에 겪어야 하는 스노우 보드 금단현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작년 여름부터 웨이크 보드를 시작했다. 하고 보니 스노우 보드에서 발휘할 수 있는 스피드와 기술이 그대로 가능할 뿐 아니라 물 위에서 하는 스포츠라서 위험은 훨씬 적어서

좋다. 다른 곳의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서울은 한강이라는 수상 스포츠를 위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니고 있다. 웨이크 보드를 즐길 수 있는 장소는 한강고수부지로부터 청평에 이르는 물길을 따라 널려 있다. 게다가 여름은 해가 길어서 서울 어디에 살든 조금만 부지런하면 평일이라도 출근 전, 혹은 퇴근 후에 얼마든지 이를 즐길 수 있다.

● 나이에 걸맞지 않는 무모함의 소치라 해도 할 수 없다. 나는 이런 과격한 스포츠를 통해서 휴식을 취한다. 가능하다면 이런 스포츠를 오래 즐기기 위해 나름대로 위험을 관리하고 체력을 다지고 있지만 나는 내가 체력이 달려서 더 이상 이런 스포츠에 매달릴 수 없을 때부터라도 내 인생의 평온이 절로 찾아오기를 바란다. ☞